

「총, 균, 쇠」, 「1984」, 「침묵의 봄」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그러나, 이런 시사점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멈춰있는가?

201122882

영어영문학과

전영미

내가 기말 보고서의 주제를 “「총, 균, 쇠」, 「1984」, 「침묵의 봄」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그러나, 이런 시사점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멈춰있는가?”로 선정한 이유는 일단 한 학기 동안 이 세 권의 책을 읽고 난 후, 수강한 강의의 이름인 “시대와 정신”이란 것에 입각하여 책을 해석해보고자 했었다. 그리고 그 후, 책의 내용에서 눈을 돌려 그 초점을 나 자신에게 맞춰보았을 때, 나는 지금 어떻게 변화하였나? 라는 물음에 봉착하게 되었었고, 그렇다.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그대로인 것을 깨달았다. “현재”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이 세 권의 책은 많은 깨달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인 면으로든 혹은 더 나아가 행동적인 면으로든, 왜 나를 역동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하였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나의 문제점이든 책의 문제점이든 그 원인을 파악해 볼 필요성을 느꼈다. 따라서 지금부터 나는 이 세 권의 책들을 시대와 정신이란 측면에 입각하여 내가 느낀 점을 서술해볼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그대로인지에 대해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먼저 「총, 균, 쇠」는 나에게 시대와 정신에 대해 “매우 광범위하고 총체적이지만 또한 편협한” 통찰력을 준 책이다. 「총, 균, 쇠」에 대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었던 내 느낀 점은 위와 같았다. 여기서 뭔가 이상할만한 점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바로 ‘광범위, 총체적’이란 두 단어와 ‘편협’이라는 이 단어가 서로 상반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총, 균, 쇠」를 읽고 나서 나는 최근 1만 3000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 동안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발전해왔고 어느 곳곳에서든 발견할 수 있는 현재의 불평등 현상의 가장 뿌리 깊은 근원이 환경적 차이에 비례하였다는 크나큰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이러한 ‘명백한 사실과 같아 보이는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게 되었고, 그렇다. 그것이 다였다. 즉 현재의 불평등하게 발전되어온 인류의 역사는 환경적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이구나’라는 어떻게 보면 매우 편협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 문장으로 내 느낀 점을 저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부터는 「총, 균, 쇠」가 내게 준 시사점과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던 이유에 대한 고찰을 이 느낀 점과 결부시켜 설명해보고자 한다. 작가는 처음에 현재 세계 어느 곳에서도 쉽게 관찰될 수 있는 인류의 불평등 현상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된다. 각 대륙과 대륙은 서로 다른 속도로 현재의 모습을 갖추며 발전되어 왔는데 왜 이런 속도의 차이를 갖고 발전할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한 물음이었던 것이다. 지금 “현재”라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이라는 것을 있게 해준 과거의 발전 양상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우리의 뿌리를 알게 해줄 수 있는 일이며 현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도 길러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제레드 다이아몬드 또한 독자들에게 역사가 진행되어 온 어떠한 경향성에 대해 일깨워주고 싶어 했던 것이라 감히 생각해 보는 바이다. 저자는 현재 매우 발전해 있는 유라

시아가 몇 가지 환경적 측면의 차이로 인해 다른 대륙보다 월등한 속도로 지금의 문명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 환경적 요인들이 무엇이나면, 첫 번째는 가축이다. 유라시아인들은 가축과 오랫동안 밀접하게 살았기 때문에 진화된 각종 병원균들을 가지고 있었다. 유라시아는 비교적 넓은 대륙을 가지고 있고 태생적으로 다른 대륙들보다 많은 가축의 수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가축들을 사육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가축들에게서 옮은 전염병 등이 이 대륙에서 진화될 수 있었고, 이미 오랫동안 가축으로 인한 전염병에 노출되어 내성을 기른 유라시아인들은 이러한 전염병을 이겨 낼 수 있었지만 생전 처음 이 병원균들을 접하게 된 다른 대륙 사람들은 병원균을 품은 유라시아인들에 의해 저항할 힘도 없이 정복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농업을 통한 식량 생산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농업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정주형 생활을 하게 되고 한 곳에 오랫동안 살게 됨으로 기술의 축적 또한 가능해지며 많은 사람들을 부양할 수 있게 되어 인구수가 많아지게 되고 이 많은 인구를 다스리기 위해 중앙집권적 정치 체계가 확립되게 된다. 더불어 문자 고안이 된 곳은 농업화가 이루어진 곳이 대부분인데, 조직을 체계화 시키고 의사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문자를 가져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밖에도 대륙의 축의 방향 또한 중요한 환경적 요인에 속했는데, 유라시아 같은 경우는 축의 방향이 동서쪽이었기 때문에 문명이나 문화, 기술의 전달이 비교적 쉬운 편이었으나,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등의 다른 대륙들은 축의 방향이 동서쪽이었기 때문에 기술과 문명의 확산에 있어 많은 장애물이 있었고 따라서 더디게 발전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더 많은 다른 사례를 들어 각 대륙들이 다른 속도로 발전해온 역사를 하나의 경향성을 통해 즉 환경적 요인의 차이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주장을 담은 <총, 균, 쇠>를 읽으면서,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 것은 사실이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과거의 역사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 발전해왔는가에 대해 생각해보고 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사실 주위를 둘러 봤을 때 쉽게 볼 수 있는 많은 불평등들은 각 개인의 능력에 따른 차이로 생각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 생각해 봤자, 사회 경제적 체제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는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처럼 결부되어 있는 문제로 밖에 치부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허나 1년 전의 우리나라 경제나 사회가 어떤 양상을 띠며 발전하고 있었는지도 모르는, 어쩌면 시대의 흐름에 무관심한 나에게 1만 3000년이라는 광범위한 역사를 시원하게 한 가지 측면에서 조명하여 설명한 이 책은 범접할 수 없는 위업으로 나에게 다가왔고 정말 역동적이고 놀라운 과거를 체험한 듯한 신성하고 경이로운 경험을 선사해주었다. 지금 시대의 우리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경향성을 가지고 발전된 과거가 축적되어 이루어진 결과물이며, 지금 우리 시대 또한 또다른 혹은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곧 미래를 만들어 내는 뿌리가 될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든 압도적으로 많은 사례들과 신빙성 있는 근거들에 감탄하며 그의 주장을 일말의 비판적 사고 없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놀라운 느낌들을 책을 읽고 깨닫게 된 점과 결부시켜 적어본 후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했지?' 이것이 아니더라도 '나는 무엇을 하고 싶었지?'. 어떠한 생각을 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실행을 중시 여기는 나에게 이 질문은 단순히 어떠한 깨달음 보다는도 중요한 문제였다. 앞서 말했다시피, 나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읽고 난 후에도 멈춰있었고 이 책은 내가 무언가 실천력을 보이며 어떠한 행동을 해야겠다는 동기 부여와 목적 의식을 심어 주지는 못했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사실 엄청난 명성을 지닌 한 저자가 내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주제에 대해서 나에게 가장 큰 정보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에서도 찾을 수 없는 막대한 분량의 신빙성 있는 근거를 토대로 일관성 있는 어떤 주장을 펼치는데 나는 완벽하게 그에게 압도될 수밖에 없었다.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책 내용과 관련하여 토론 수업을 진행해야 할 때가 있었는데 토론 문제를 당시 ‘발명은 개인에 의한 것이냐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이냐’로 정했었다. 만약에 모두가 「총, 균, 쇠」를 읽지 않은 상황에서 이 토론이 진행되었다면 열 뼉 토론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토론 진행을 준비한 나조차도 다른 학우들처럼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주장에 압도되어 ‘개인의 중요성이 더 크다’라는 주장을 펼칠 수 없을 것 같아서 매우 분했고 답답하기 그지없었던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만약에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자기 주장만을 뒷받침하는 근거들만 나열한 것이 아니라 그 밖의 다른 가능성과 다른 주장에 대한 근거 또한 비슷한 비중으로 들어줬다면 나를 포함한 독자들을 더욱 비판적이고 다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과 동시에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었다. 왜냐면, 이 책에서 받은 또 다른 나의 개인적인 느낌은 아주대 종합관 대강당에 외국의 저명한 저자가 초빙되어 강연을 하게 되는데, 그의 압도적인 명성과 압도적인 논리에 1시간 반 동안 입만 벌리고 새로운 사실에 감탄하기에 바쁘며 아무런 생각 없이 그의 주장 그대로 무비판적 자세로 받아들인 후 허무하게 끝나버린 강의를 들은 기분이었다. 따라서 환경적 측면에 차이가 있어서 각 대륙은 다른 속도로 발전해왔는데, ‘그래서 뭐 이썬다는 것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미 태생적으로 아주 먼 옛날부터 인간의 의도와 상관없이 정해져온 일인데, ‘이제 와서 뭘 어떡하라고?’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차라리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여러 주장과 시각에 입각하며 인류 문명 발전의 역사를 역동적으로 소개해줬다면 나 또한 변화하는 역동적인 시대에 대한 다각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미 정해진 환경적 요인외의 인간의 힘으로, 또한 노력으로 일궈낼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에 용기를 얻을 수 있었을 것 같다. 따라서 현재와 미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에 소임을 다해야 할 기회를 얻게 되었을 때 더 적극적인 자세를 띠고 참여하게 될 수 있었으리라 확신한다. 그저 ‘정해진 어떤 큰 경향성이 어떡했다’라는 주장 속에 파묻혀 버리는 것 보다는,

두 번째로 읽게 되었던 「1984」는 시대 속의 개인이 가질 수 있는 힘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해준 책이었다. 책을 읽어 본 모두가 알다시피 「1984」의 시대는 전체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전체주의도 그냥 ‘개인 보다 사회, 집단, 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수준의 전체주의가 아닌, 극한의 양상을 띤 전체주의였다. 무엇이나면, 각 당원들은 텔레스크린이란 것을 통해 개인의 사적인 생활까지 완벽하게 감시받고 통제 당하며 서로가 서로의 감시 대상이 된다. 개인은 빅브라더를 숭배하고 골드스타인을 증오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사사로운 감정을 가져서도 안되고, 당의 의도와 신념(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에 어긋난 발상과 행동을 할 시에는 사상경찰에게 체포되어 증발되곤 하는, 지금으로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전체주의 사회가 「1984」에서는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을 쓴 저자 조지오웰은 당시 전체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혹은 시간이 지나 가지게 될지도 모르는 폐해에 대해 경고를 하려고 이 책을 집필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 시대 속에 개인들이 강력한 힘을 가진 소수의 지배자들에 의해 세뇌당하고 압도당하게 된다면, 실제로 이런 일이 어찌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느낀 것처럼 조지오웰은 말도 안되는 상황의 전체주의가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고 사람들을 각성시키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지오웰의 의도를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깨달음을 얻었던 나는 소수에 의해 다수가 잘못된 방법으로 이용되고 지배

당하는 일을 예방하거나 피하기 위해서는, 다수에 속하는 각 개인들의 각성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미치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전체 속에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힘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전체 속에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존재는 바로 「1984」에 나오는 윈스턴이 아닐까 싶다. 윈스턴은 그가 살아가는 시대의 부조리함과 불합리함을 깨닫고 이에 저항하는 단체에 가입하여 빅브라더를 타도하고자 한다. 허나 그는 사상경찰의 덫에 걸려 체포되고 말았고, 끔찍한 고문이 동반되는 사상 교육을 받은 후에 사랑하는 사람을 배반하고 마침내 빅브라더 체제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확인하게 된다. 전체 속에 개인의 힘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여과 없이 보여주는 대목이라 볼 수 있다. 거대한 한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고자 하는 이의 최후는 그 얼마나 보잘 것 없고 비참한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나 또한 우리나라의 지배층 혹은 고위층에 속한 사람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윈스턴과 같은 각 개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따라서 윈스턴을 보면서 감정이입이 안 될 수가 없었다. 큰 집단 속에 나 개인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부분에 관련하여 진행된 토론 수업에서도, '오늘날 빅브라더는 존재하는가?' 라는 주제에 대해 '존재한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이에 따른 예시 또한 참 많았다. 민간인 사찰이라든지, 헬리콥터 맘이라든지, 세월호 참사에서 볼 수 있었던 정부의 여론 조작이라든지 꽤나 많은 부분이 힘 있는 소수에 의해서 감시와 지배를 당하고 있었으며, 이점에서 이것을 타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개인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실제로 아무리 소수라 하지만,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진 집단이기 때문에 아무런 힘 없는 개인은 게임을 시작조차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여기까지가 내가 「1984」를 읽으면서 받은 지배적인 느낌이자 총평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저 조지오웰이 지적하고자 했던 그 당시 시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받는 것이 아닌, 그에 대응하려 시도한 윈스턴의 철저한 패배를 통해 엿볼 수 있었던 전체 속 개인의 나약함과 무기력함을 느낀 점이 나에게 훨씬 더 강렬했다는 말이다. 또한 이 나약함은 「1984」에서만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토론 수업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충격 끝에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그렇다. 이런 충격과 패배의 기분을 맛 본 후에도 나는 멈춰있었다. 아무런 변화 없이 일상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책에서도 그렇고 현실에서도 그렇고 일개 개인은 전체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은 통렬히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없었기에 멈춰있다는 것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말로 나의 수동적인 자세를 합리화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지만, 뭔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나약함을 감당할 자신은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부당한 빅브라더의 전체주의 체제에 분개하고 깨어있는 윈스턴을 열렬히 응원하고 마지막에는 빅브라더를 멋지게 타도해 주길 간절히 바라며 읽었던 한 개인으로써 그 결과는 참담할 수밖에 없었고 이 느낌이 나를 이렇게 만든 데 영향을 미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읽게 되었던 책은 바로 「침묵의 봄」이다. 사실 「침묵의 봄」은 세 권의 책 중에 나에게 가장 실질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책이었다. 이유는 즉, 개인적으로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이 한 고시텔인데, 이 책을 읽기 약 일주일 전에 이 고시텔에서 바퀴벌레가 나와서 화학 살충제를 내 방 곳곳에 뿌려 놓았던 것이 기억이 나서였다. 이 책을 읽고 아마도 괜히 그런 느낌을 더 받았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 전에는 안그랬던 것 같은데 뭘

가 몸이 무기력해지고 눈에 염증도 자주 생기게 된 것을 이 살충제 사용과 연관시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든 생각은 화학 방제는 정말로 위험한 것이며 나의 몸 상태로 보고 스스로 진단해 보건 된 인간의 몸에 즉각적인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런 실질적인 깨달음을 얻었는데 어떻게 이 책을 주의 깊게 읽지 않았을 수가 있었겠는가. 실제로 이 책을 읽기 전에는 화학 방제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었고 이 약품을 처서 반드시 이 해충들을 죽여야겠다는 일념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어느 누가 당면한 문제 처리에 급급하게 되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미치게 될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행동하겠느냐는 말이다. 나 또한 그랬었지만 이제는 레이첼 카슨이 들려주는 화학 방제에 얽힌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어 화학방제에 대해 매우 큰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나의 이러한 생각의 변화와 깨우침이 레이첼 카슨이 의도한 것과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된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잘 모르고 있는 일반 대중에게 화학 방제의 위험을 깨닫게 하고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태도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정부의 적극적인 화학 방제 규제 제도나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 등등의 변화를 바랐던 것이 아닐까 싶다. 따라서 그녀는 당시 자연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화학 방제를 통해 자연 생태계 뿐만 아니라 인간 자체의 건강까지도 파괴해버린 사례를 들어 그 결과의 비참함과 위험성을 폭로하고 있다. 동시에 자연에 대한 관심과 보호 정신이 부족했던 당시 시대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자 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유기농 식품이니 자연 보호니 하며 자연 생태계 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곤두 세우고 있는 오늘날, 이 책이 출간된 지 한 반세기 이후인 최근에 「침묵의 봄」을 접하게 된 나조차도 화학 살충제의 위험성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으며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대부분인데, 발간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충격적인 사실이었을지 새삼 놀란다. 이렇기에, 어쩌면 자연을 무척 사랑하던 레이첼 카슨이 환경 문제에 관심이 없고 자연을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만 여기던 당시 사람들의 의식을 개혁해야 할 당위성을 느꼈을 것 같기도 하다. 당시 무차별적으로 사용된 화학 살충제로 인한 자연피해와 사람들이 건강에 입은 피해가 너무나도 끔찍했기 때문이다. 이렇게만 보면, 레이첼 카슨은 <1984>에 나오는 윈스턴과 매우 다르다고 생각된다. 물론 두 인물은 실존 인물이고 허구의 인물이고의 차이를 떠나 두 사람이 놓인 환경 자체가 크게 달랐지만, 그래도 레이첼 카슨은 개인의 노력으로 시대의 정신과 의식 및 흐름을 바꿔놓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나 또한 「침묵의 봄」을 읽고 화학 살충제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무참히 희생당한 자연 생태계에 대해 안타까움과 미안한 감정을 느끼며 자연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게 사실이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행동에 거의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시대에는 어떠한 큰 흐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너무나 많은 곳에 화학적 방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아무리 환경을 생각하는 화학 살충제로 나온다 할지라도 이는 분명히 자연과 인간에 해를 끼칠 화학 성분으로 구성되어있다는 점이다. 물론 개개인의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드는 것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실태만을 조명해본다면, 나 개인의 변화가 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개인적으로 책을 읽으면서 레이첼 카슨이 제안하고 있는 해결방안이 각 개인이 실천하기에는 다소 추상적이고 따라서 명백한 답을 제공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고 화학 살충제를 쓰는 양을 줄여야한다 던지 이런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은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 또한 눈 앞에 나에게 해로운 곤충이 또 나타나면 아마도 화학 살충제를 손으로 들어 죽이려 할 것이다. 비록 그 양은 옛날처럼 무지막지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언정.

지금까지 세 책을 읽고 느낀점을 기술해 보았고, 책을 읽고도 나는 큰 변화 없이 책을 읽기 전의 나의 일상생활로 돌아와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에 대해 성찰해 보았다. 어떠한 한 시대를 어우르는 통찰력을 지닌 작품을 읽고 현재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란 사실 말처럼 또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란 시대와 관련시켜 작품을 이해하다보니까 무엇인가 내가 변화된 행동을 했어야만 하고 그 변화가 미래를 바꾸어 나갈 원동력이 되어야만 하는 부담감이 느껴졌던 것도 사실이다. 허나 나는 각 시대를 이해하긴 했지만 오늘이란 시대에 충실해 지금을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본다. 그래도 단순히 '무엇을 느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라는 의식적이고 추상적인 측면에서 느낀점을 기술하다 끝난 것보다는 나의 행위 변화에 대해 성찰해 보고 반성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이런 작은 계기와 경험 하나하나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의 경향성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며 시대와 정신이란 과목을 통해 접했던 세 작품에 대한 기말 보고서를 마칠까한다.